

민주노총 새집행부에 바친다

어려울 때 진정한 벗을 알 수 있다

김범진

서울동부지역금속노동조합 교육부장

사회 대안세력으로서의
설 자리를 만들어 내야 한다.
그리기 위해선 정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비록 생각이
틀릴지라도 포용할 줄 알아야 한다.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적보다는
협력자로 만들어야 한다.

현장노동자들의 의식분열

“아주머니 지금 회사가 하려는 조업단축이나 상여금 50% 삭감은 회사의 경영상태를 솔직하게 공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저희에게 고통분담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러한 문제를 노조와 상의하지 않고 노사협의회에서 처리하며, 얼마전 사장님이 큰 딸을 위해 학원을 채려준 것은 무엇입니까?” 하지만 아주머니 반응은 예전과 같지 않다. “IMF경제난국인데 우선 회사가 살아야 우리가 살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회사도 어려운데 너 회들은 너희 요구만 하느냐”라고 말끔하신다.

요즘 현장의 대중들을 보면 갑갑하기만 하다. 더 이상 뺏기고 뺏겨 물려설 데가 없는 사람들이다. 어떤 아주머니는 모든 식구가 실직되고 10년 동안 벗어나지 못하는 월세방마저 위태위태한 상태이다. 또 작년에 장가간 전자부 청년은 월세금 20만원은커녕 것 들 지난 아이 분유값을 마련하기 힘들어 차자식을 장모님 댁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다. 이번 달 월급도 대부분 50~60만원을 간신히 넘



지난 5월 1일 종로공원에서 열린 노동절 집회에서 노동자들이 고용안정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어 받았다. 당하는 것만도 억울한데 IMF를 틀타 회사 쪽에서는 현장통제를 강화하고 노조를 무력화시키기에 협안이 되어 있다. 우리가 무엇을 더 양보할 것이 있겠는가. 오직 부정만이 살길이다는 생각뿐 인데도 상황은 오히려 우리의 투쟁을 '회사사정도 모르고 위기에 동참하지 않고 자기 것만 쟁기려는 놈들'로 인식하게 만들고 있다.

작년에 노조를 건설했다. 회사가 노동법 날치기 통과를 틀타 변형근로제를 실시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때 과반수 이상이 노조에 가입했었고, 기입을 사정상 못했어

도 대부분이 조합에 우호적이었고 적극 지원했었다. 작년에 노조만이 변형근로제를 막고 그 동안 당했던 억울한 사연들을 들어줄 수 있었다. 유일한 희망이자 대안세력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믿고 기대할 만큼 힘있는 세력으로 자리잡고 있지 못하다. 오히려 노동자들은 회사의 요구대로 하는 것이 자신의 이익을 조금이나마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대안세력이 서야한다

노동자가 처한 사회 경제 조건에선 언제



든지 투쟁의 불씨를 지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운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길이고 그것을 따르고 믿을 수 있는 힘단이 없으면 그 투쟁은 우발적이 되고 일회성에 그치고 만다. 97년 노동자 총파업은 이제는 노동자가 무시할 수 없는 사회 세력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주었다. 우리가 투쟁의 현장에서 갑작의 환호를 절렀던 것은 단지 사람이 많이 모여서가 아니라 기대와 희망을 걸 수 있을 만큼 우리의 힘이 성장했음을 느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정치세력화의 과제를 내걸고 대선에도 참여했었다. 정치세력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이고 우리는 지금까지 강력한 대중투쟁을 통해 사회 정치 세력으로 성장해 왔었다. 그러나 이제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힘든 치지와 울분만으로 투쟁에 나서지 않는다.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인 대안, 그것을 국민의 동의와 지지로 확보할 수 있는지도 판단해 본다. 그만큼 의식과 책임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과학적이고 합리적이 되었다는 것이다.

개별노조의 힘만으로는 이 위기와 경제적 난국을 극복할 수는 없다. 이미 자본가들은 정부와 언론을 등에 업고 총공세를

펼치기 때문이다. 단위노조 차원의 경제부쟁과 일상활동을 가지고는 이러한 공세를 막기란 불가능하다. 또한 노동자의 힘만으로도 이것을 뚫고 나갈 수가 없으며 다양한 계층의 지지와 연대를 확보해야 한다. 그래서 민주노총은 산별노조 건설을 통해 노동자를 중심으로 세우고 정치의식을 높이며 사회개혁투쟁이라는 정치사업들을 끊임없이 전개해 왔다. 사회적 대안세력으로서의 설 자리를 만들어 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정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비록 생각이 둘필지라도 포용할 줄 알아야 한다.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적보다는 협력자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지금 민주노총은 부당노동행위 중단과 실업대책, 재벌 개혁을 요구하며 투쟁을 일구고 있다. 모든 사업자의 마음과 생계를 위협받는 노동자의 심정을 담는 싸움을 해야하지만, 진정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대안세력으로 희망을 줄 수 있는 세력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도부의 단결이 중요한 과제이다

작년 노조 건설 과정에서 싸움이 중반에 이르자 회사는 더 이상 변형근로제를 실시할 명분도 못 찾고 우리의 힘에 밀려 변형근로제를 취소하고 그전의 상태로 되돌린다고 하였다. 이때 내가 현장 교섭위원으로서 책임자의 역할을 맡고 있었다. 나로서는 '변형근로제를 막고 노조를 건설한

것도 큰 성과가 아닌가, 여기서 더 요구하면 회사의 반격도 거세지고 대중들도 부담을 가지며 돌아서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다. 이렇게 제기하자 많은 사람들의 반론에 부딪쳤다. "조합건설이 단지 변형근로제를 막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20여년 동안 회사가 마음대로 일시켜가며 빼앗은 우리의 권리 를 되찾고 당연히 줘야 할 혜택을 보장받자는 것 아니냐. 우리를 믿고 더 싸워보자"라고 했었다. 많은 갈등이 표현되었지만 우리가 세웠던 전지도부와 조합원간의 단결이었다. 물론 대중들 가운데는 더 이상의 싸움을 두려워하며 우리가 중단할 것을 바라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잘못되더라도 그것

이 우리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그 속에서 성장할 수 있다면 더 싸워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연히 우리의 단결의 힘은 10년 동안 한번도 올라지 않았던 상여금 300%를 50% 더 따내고 여러 근로조건들을 개선해 낼 수 있었다. 또한 우유부단한 책임자를 조합원을 믿고 조합원의 신뢰를 받는 책임자로 세워주었다. 아직도 그 애정 어린 비판이 나를 단단한 간부로 만들었다고 믿는다.

올해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 참여를 통해 아쉬웠던 것은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다른 유리한 조건을 주더라도 내부 단결을 해친다면 과감히 맞서 싸워어야 했다. 조건이 아무리 좋아진다고 해도 내부 역량이 준비되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전진할 수 있으나 결국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모습이 될 것이다.

비판은 애정을 담고 함께 책임지는 자세로

**우리가 당신을 대표로 뽑아줬으니
잘하면 동참하고 잘못하면 욕하는 자세는
주체성 있는 모습이 아니다.
잘못이 있을 때는 애정 어린 비판으로
지도부를 더욱더 힘있게 세우고,
잘하는 모습일 때는 끝까지 함께
책임지는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노사정 과정에서 지도부의 혼란을 비판했던 몇몇 단위조직도 문제가 있다. 우리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정리해고와 부당노동행위의 칼바람을 그대로 맞고 있어 사정은 더 절박하다. 대기업의 경우 대부분 힘있는 노조가 있어 그래도 비밀 언덕이 있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어디 하나 자기처지를 하소연 할 데도 없고,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까지 끊는 절망감에 빠져 있는 것이다. 우리 지역노조도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것을 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깝지만 결국은 민주노총을 강화하고 산별노조를 건설하는 길만이 이 난국을 뚫고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부가 잘못하고 혼란스러워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도 그냥 방관할 수가 없다. 하지만 지도부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단위노조와는 일심단결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당신을 대표로 뽑아 줬으니 잘하면 동참하고 잘못하면 욕하는 자세는 주체성 있는 모습이 아니다. 잘못이 있을 때는 애정 어린 비판으로 지도부를 더욱더 힘있게 세우고 잘하는 모습일 때는 끝까지 함께 책임지는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

인간다운 승리를 이뤄야

노조 건설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들의 지지 를 획득했던 것은 그래도 노조 사람들이 괜찮은 놈들이었기 때문이다. 예의 바르고 쌩쌩하며 남 일도 자기 일처럼 도와 나섰다. 아침에 출근할 때 반갑게 인사하는 우리 현장 사람들 분위기를 보고 옆 사업장 아주머니가 부러워했던 적이 있다. "우리 애들은 지들만 생각하고 아는 척도 안한다"고. 현장의 노동자들은 인간 뒤튀이를 보고 판단을 많이 한다. 아무리 말 잘하는 사람이라도 그 인간됨이 틀렸다면 무시를 하고 정말 사귀어 볼만한 사람은 말을 잘 못하더라도 그 뜻을 지지하게 된다.

권영길 위원장님을 존경하게 된 이유도 인간적인 포용력 때문이었다. 우리조합에서 사탕 하나 드린 것도 기억하며 우리의 어려움을 마음으로 함께 하려 했다. 명동 성당을 떠나며 추기경의 환송을 받으며 떠났던 곳은 민주노총밖에 없었을 것이다.

자본가들은 회유와 폭력으로 사람을 다스리지만 우리 노동자는 인간적인 매력으로 사람을 조직해야 한다. 가끔씩 상급단

위에 가보면 업무에 파묻혀 사무적이 되어 버린 간부들의 모습을 느끼곤 한다. 사람의 심정과 마음을 인간적으로 품지 못하면 그것이 곧 판료와 관성이 될 것이다. 우리 조합에서도 가끔은 하소연하러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말도 안되는 불만이나 심정을 토로하는 사람도 있다. 때로는 귀찮게 여기기도 하지만 이들이 이곳에서마저 외면 당하고 무시당한다면 이들이 쉴 곳은 절망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억눌린 사람들의 심정을 의식화하고 조직화해야 한다. 단순한 불만과 억울한 심정이 끊임없는 교양과 설득으로 사회정치 의식으로 자리나게 해야 한다. 새 사회에서는 억눌린 민중이 이 사회의 주인으로 살 수 있음을 신념과 실천으로 만들어 내야 한다.

어려운 시기를 맞아 거친 풍랑 속에서 노동자의 나침반이 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하지만 역사를 만들어 가는 사람은 어려울 때 그 진가를 드러내기 마련이다. 상황이 좋을 때는 어느 세력이 우리의 벗인지 구분이 안간다. 하지만 어려운 시기를 거치면 껌데기는 없어지고 그 위기를 희망으로 만드는 세력이 민중의 중심으로, 지도세력으로 서게 된다. 민주노총 2기 집행부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그 책임을 맏게 됐다. 항상 노동자의 가슴에 튼튼히 뿌리 박혀 노동자와 함께 희망과 대안을 만들어 가자. 그 길에 실천하는 민중이 언제나 함께 할 것이다. ♦